



“새 시작을 알리며”

한국기독실업인회가 최근 논산 육군훈련소 '연무대군인교회'에서 '제50차 정기총회'를 개최한 가운데, 행사 후 회원들이 교회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한국CBMC 제공

CBMC 50차 총회 개최 두상달 중앙회장 연임

한국기독실업인회(중앙회장 두상달, 이하 한국CBMC)가 최근 논산 육군훈련소 '연무대군인교회'에서 '제50차 정기총회'를 열었다. 전국 140여 개 한국CBMC 지회 대표 300여 명이 참석해 전년도 사업 보고를 받고 2017년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총회에서 두상달 회장의 한국 CBMC 중앙회장 연임이 회원들의 추대 속에 결정됐다. 이로써 두상달 회장은 앞으로 2년동안 한국CBMC에서의 사역을 계속 이어간다.

뜨거운 박수갈채 속에 강단에 오른 두상달 회장은 “변화와 변화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계속되어야 한다”며 “CBMC의 변화의 틀을 조금 더 견고히 하라고 주시는 기회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나라와 열방, 다음 세대를 품고 빛나는 시대의 주역, 자랑스러운 CBMC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도전적 메시지를 덧붙였다.

논산 육군훈련소 구제서 소장은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는 논산 육군훈련소 연무대군인교회에서 CBMC 정기총회를 열게 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놀라운 일이라 생각한다”며 “또한 이곳에서 열릴 한국대회를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국CBMC는 2017년 사업주제를 ‘견고한 기초 위에 미래와 희망으로 새 역사를 만들자’로 정하고 CBMC의 오랜 관습과 정체에서 벗어나 시대에 맞는 패러다임의 변화로 새로운 역사의 시발점을 열었다.

한국CBMC는 지회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교육프로그램 정비와 다양한 강사풀을 구축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 시키기로 했다.

또한 집행위원장 책임제를 확립해 팀위

크를 중심으로 사역을 진행하고 대외협력과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하는 등 8가지 주요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총 6개 부문의 수상이 있었다.

▶지회창립공로상 조해용(목포예향지회), 장명선(중문지회), 전하늘(서귀포여성지회), 손문승 (153지회), 신종호(나동지회), 서홍빈(빛가람지회)

▶지역봉사상 이승울(서울영동, 한국 CBMC 중앙회)

▶사업공로상 이대식(여의도지회, 한국 CBMC 중앙회), 김항재(연산지회, 한국 CBMC 중앙회), 원혜숙(평택지회, 한국 CBMC 중앙회), 손제열(반포지회, 한국 CBMC 중앙회)

▶공로패 정호철(강남비전지회, 한국 CBMC 중앙회), 조학봉(서귀포지회, 한국 CBMC 중앙회), 세라박(서울강남, 한국 CBMC 중앙회)

▶모범지회상 153지회
▶모범연합회 서울남부연합회가 각각 수상했다.

또 청년선교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한국CBMC는 이날 연무대군인교회 건축 헌금 2억 5천만 원을 전달하고, 참석한 회원들은 건축 현장을 둘러보기도 했다.

한편 한국CBMC는 “가장 큰 연례 행사인 한국대회도 오는 8월 14~16일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개최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를 통해 한국 청년 선교사역의 뜻을 더욱 굳건히 하며 차세대 양육 및 선교후원 계획을 구체화 할 전망”이라 전했다.

홍은혜 기자

“한국사회 청년문제, 교회 내 참여·연대의 공간 필요해”

예장통합 사회봉사부 ‘한국교회와 청년복지’ 주제로 사회복지 헌안세미나 개최

“한국의 청년들은 지금 출구 없는 골목에서 아무런 보장 없는 무한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대학입학률은 최근 몇 년 간 70%가 넘는데, 대학졸업자들의 취업률은 50%를 가까스로 넘고 있다. 그나마 취업을 한다고 해도 대부분 비정규직을 전전하거나, 아르바이트를 직업으로 선택하는 이들이 부지기수다. 치열한 입시경쟁을 뚫고 대학에 진학해도, 청년들은 또 다시 취업경쟁에 뛰어들면서 사적인 연애나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들을 통해 전망할 수 있는 한국사회의 미래상은 암울하다.” 대한민국 청년들의 현실이 이렇다. 지난 21일 낮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는 예장통합총회 사회봉사부 주제로 “한국교회와 청년복지”를 주제로 ‘제101회기 사회복지 헌안세미나’가 열렸다. 행사에서 성석환 교수(장신대 기독교와 문화)는 “한국사회의 청년문제에 대한 공공신학적 이해”를 주제로 주제발표를 했다. 위 한국 청년들의 현실에 대한 지적은 성 교수의 발제 시작이었다. 성석환 교수는 “모름지기 청년의 시기 도전하고 실패를 통해 배우는 때라고 말하는 것도 사치가 되는 상황에서, 종교계를 비롯해 학계와 정치권에서 제시하는 해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며 “청년 개개인들을 위로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과 노동계를 압박하는 정책을 내 놓는 것”이라 했다. 전자는 대부분 소위 ‘힐링’이라는 테마로 청년들의 마음을 다독이며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려고 했고, 후자는 결국 최근 ‘유연고용제’와 ‘임금피크제’라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나 성 교수는 “이런 식의 접근이 지금 청년들이 처한 우리 사회의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했다. 기독교청년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까? 성 교수는 “정확한 통계가 뒷받침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기독교청년들이 이런 상황을 신앙의 문제와 결부시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기독교청년들은 ‘구차하기 그지없는’



장신대 성석환 교수

(?) 문제를 굳이 교회에 와서까지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사회적 실패가 용인되고 포용되기 보다는, 오히려 은폐된다”고 했다. 더불어 “이 시대의 청년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사회적 차원의 접근보다는 개인이 각자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했다. 덧붙여 “가난한 이웃을 돕자는 일에는 동의하지만, 그들의 가난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면서 “청년들은 교회에서도 사회적 역할로부터 배제 된다”고 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일부 서구 지식인들과 사회학자들이 놀람게도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활발하게 재조명하고 있다고 한다. 성 교수는 “근대주의가 종교를 사적 영역으로 밀어냈는데, 그래서 공적인 영역의 합리적 공간으로부터 종교를 분리시켰는데, 지금은 종교의 공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면서 “심지어 종교 없이는 합리적인 공동체가 형성되기 어렵다고 말하기까지 한다”고 했다. 성 교수에 따르면, 이런 트렌드에 발맞춰 복지영역을 포함해 지역사회의 의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교계 의견을 수렴하고 보조를 맞추는 일들이 공공연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그는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교회나 기독교 지도자들은 그나마 공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경우”라 말하고, “그들은 사회적 의무와 종교적 의무에 공히 충성할 수 있었다”면서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의 표현들이’ 곳곳에서 출현하고 있고, 지역사회와 함께 공동체적 삶을 사는 것을 선교라고 인식하는 이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이야기 했다.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기독교의 공적인 역할에 대해 강조하면서 지역사회와 연대하자는 주장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성 교수는 “공공신학이 교회 외부의 다양한 주장들과 대화하며 기독교적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가 하면,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라는 움직임은 교회가 성장과 변형을 지향하고, 하나님의 선교의 지역적 실현에 헌신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고 했다. 특히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선교적 교회’는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실천하는 제자공동체가 교회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교회는 지역사회를 전도의 대상으로만 구분짓지 않고 있다. 선교적 교회의 구성원들

에게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에서 말하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랑 안에서 이웃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다. 다만, 성교수는 “기독교의 공적 역할을 강조하는 새로운 시도들도 현재 한국의 청년들이 직면한 위기에 대해서는 별 다른 언급이 없다”면서 “기독교청년들도 현 상황의 문제들을 공적인 신앙이라는 차원에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석환 교수는 “한국교회의 기독교청년들이 더 강력한 동기, 즉 신앙에 의해 현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정당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부당한 현실에 저항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청년을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시류에 순응하는 무기력한 기독교청년을 길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그는 “교회가 청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기초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길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하고, “오늘 이 시대 청년들에게 증언할 수 있는 공적인 실천방안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도 성 교수는 “기독교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 받은 의미가 한국사회에서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고 말하고, “그것은 세상과 분리되는 것도 아니고, 값싼 은혜의 눈물을 흘리는 것도 아니”라며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를 되새기고(전12:1),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아 무리 속에서 그리스도가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어야 한다(마28:19-20)”고 했다. 이를 위해 성교수는 “먼저 청년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참여의 공간, 연대의 경험, 이 제공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것은 기독교청년들이 우선적으로 동시대 청년들을 위해 주도해야 할 과제”라 이야기 했다. 특히 그는 “교회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고, “교회는 지역사회의 지역적 정체성과 무관할 수 없다”면서 “지역교회가 아닌 교회도 많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가 공유하는 지역적 특성과 필요에 대해 주도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책임적으로 대처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물론 그 동안 교회가 지역사회를 단지 전도의 대상으로만 간주하고 수행하는 복지사업의 경우, 교회의 가부장적이고 교회 중심적인 관점으로 인해 지역공동체로부터 외면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성교수는 이런 상황이 서구에서도 복음주의 계열의 교회들이 경험하는 한계였다고 지적

하고, “한국교회는 이런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면서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대화하게 되고 공론을 형성할 여지가 생긴다”고 했다. 더불어 성교수는 “기성세대가 그나마 이렇게 해서라도 지역의 구성원들과 접촉할 기회를 마련할 수는 있겠지만, 청년들은 전에도 무관심한 경우가 많고 청년부 내부에서 경험하는 종교행위가 지역사회를 통해 드러날 기회가 별로 없다”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들과 만날 기회를 의도적으로 만들고, 그 지역과 공동체에서 우선적으로 요청되는 참여와 연대의 실천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자원들을 동원하는 경험에 필요하다”고 했다. 특별히 성교수는 “기독교청년 ‘선교적 교회’ 관련 논의에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와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현재 교회 밖에서 실천되고 있는 다양한 공동체 관련 사업들에 교회의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의 공동체적 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소통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경험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마지막으로 성교수는 “지역사회에서 참여의 경험을 하려면, 먼저 기독교청년들의 신앙이 무리와 세상에서 제자의 공적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인식이 공유가 되어야 한다”고 다시 강조하고, “그들에게 공론장이 허용되어야 한다”면서 “사회적 의제나 정치적 사안들에 대해 신학적 관점을 갖고 공적인 역할을 위해 참여하도록 격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교회는 “기독교청년들이 공적인 신앙으로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한편 세미나에서는 성석환 교수의 발표 외에도 정무성 교수(숭실대 사회복지학과)가 “저출산 고실업 시대의 청년복지 정책과제”란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또 청년들이 직접 발언하는 발표의 자리도 마련되어 “도움을 구할 곳도 받을 곳도 없는...결국 혼자인가요?: 교회 안의 청년 이야기”(정민근 기독교청년아카데미 사무국장) “알마나 더 노력해야하죠?: 청년부채와 주거문제”(이충희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생육하고 번성하라구요?: 청년취업과 결혼문제”(박재민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등의 발표가 이뤄졌다. 마지막에는 조홍식 교수(서울대 사회복지학과)의 사회로 종합토론의 시간이 마련되기도 했다.

조은식 기자

기독일보

www.christiandaily.co.kr

사장/발행인 김광수	일반편집장 장세규	교계편집장 김규진
136-075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안내 02-739-8119 / 팩스 02-739-8120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구독신청 1년 180,000원 / 6개월 90,000원 / 1개월 15,000원	광고 및 구독문의 070-4352-2480 대표구좌 SC은행 130-20-571787 우리은행 1005-301-884992	

미주 기독일보 www.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그 사건 후 내 이름은 ‘안산 단원고 2학년 이창현 엄마’

[세월호 유가족 인터뷰]

“극소수지만 하나님 진짜 믿는 사람들 모습 봐서 감사”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경기도 안산 합동분향소 옆 컨테이너에는 개신 교·천주교·불교 등 각 종단 별로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한 종교시설이 있다. 이곳에서 개신교 예배는 매주 목요일 오후 6시와 주일 오후 5시에 진행된다.

기자가 방문한 지난 16일에는 이 모임 시작의 주축이 됐다는 장신대 신학생들과 세월호 유가족 10여명, 이날 방문한 새터교회 교인들, 꾸준히 이 모임에 온다는 지역교회 목회자 몇몇이 참여했다.

“2학년 5반 이창현 엄마 최순화예요.” 그날 만나 인터뷰한 세월호 유가족에게 그의 이름을 묻자 그가 한 대답이다. 마음이 쩔었다.

지난 2015년 1월부터 시작된 세월호 유가족 개신교 예배모임의 대표로 있는 최순화 씨는 세월호 사건 이후 정부와 교회와 사회에 많이도 실망해 날이 선 그였다. 하지만 아들의 이름을 말할 때는 아직도 소내 같은 ‘어머니’였다.

세월호 사건 이후 최 씨는 다니던 교회를 떠났다고 했다. 50년을 다닌 교회도 그의 마음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했었던 모양이다.

‘내 자식, 내 가정 잘 되는 축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 잘 믿어야 한다’는 똑같은 설교를 자식을 잃고서는 더는 듣고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세월호 사건이 터진 후 ‘우리는 변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교회는 여전히 사회에 대해 무관심했다. 우리 교회, 우리 교인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교회 안에 들어가면 다 천사 같고 아픈 사람도 한 명도 없는 것 같고, 저들은 모든 일이 잘되는 것 같고...그런데 개개인 다 들어가 보면 아픔이 있고 사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 감사하고, 은혜롭기만 하고 그런 분위기에서 벗어나면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고....”

그런 분위기도 그에게 힘들었던 것 같다. 크리스천 중 적지 않은 이들은 이렇게도 말했다.

“세월호에 탔던 250명 학생 중에 76명은 크리스천이라, 그래도 그나마 전국 가서 다행인데 나머지 아이들은 지옥 가서 불쌍해서 어떻게 하냐고....”

최순화 씨도 교회에서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뭐라고 반박은 못했지만 그런 말들이 위로가 되기보다는 교회에 대한 실망감만 안겨줬다고 했다. ‘그런 하나님은 아닌 것 같은데...’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다.

자식을 잃은 고통에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는 정치세력으로 비취지는 억울함까지 더해졌지만 교회는 그 보호막이 되어 주지 못했다.

“모르시는 분들은 세월호 리본만 봐도 교회에서 그걸 왜 하고 있냐고 오히려 손가락질하셨어요. 세월호 리본 하나 했다고 교회에서 해임 되기도 하고, 선교사님들이 후원금이 끊어지기도 하는 일들이 비밀비재했었어요.”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애곡된 뉴스들이 ‘교회에서는 더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것 같았다’고도 했다.

그래서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세월호 사건이 있던 그해 9월부터는 교회들의 신청을 받아서 직접 찾아가 간담회를 했다.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 달라고, 주류 언론에서 말하는 게 진짜가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게 진짜라고 말하고 싶어 해의까지 가서 알렸어요.”

최순화 씨는 “정부와 싸우면서 말도 안



(두번째 줄 왼쪽에서 두번째) 단원고 2학년 5반 이창현 학생의 어머니 최순화씨가 예배 중 기도하고 있다.

되는 정부의 태도를 많이 겪었고요.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목살하는 방법들이 너무나 교묘했고 어떻게 그렇게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가는지 그 현실이 정말 믿어지지 않았고 억울했다”고 털어놨다.

다행히 사람들은 유가족들의 사정을 이해했다.

최순화 씨는 끝으로 교회에 대해서 그만큼 믿었기 때문에 더 실망도 컸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도 아니에요. 분향소에서 목요일,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아서 지금은 감사해요. 극소수지만요.”

광화문에서 금요일마다 진행되는 예배에도 지금까지 꾸준히 오는 이들이 있다며 “가족같이 서로 아니까 힘이 된다”고 했다.

유가족들을 찾아 왔지만 고통스러워 몸부림치는 그들에게 그의 말마따나 ‘예수님 안에는 해답이 없는 게 없다’고 너무 쉽게 답해주는 교회는 위로가 되지 않았다고 했다.

가족같이 지내는 이들은 교회에 대해서 ‘유가족들이 나쁜 말을 해도 불경건하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했다.

끝으로 “내 속에는 그런 게 가득한데 겉으로는 거룩한 척, 관참은 척 하는 건 위선이에요. 진짜 속마음 내보여야 길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한테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돼요”라며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세월호 사건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가 바뀌어야 한다」고 보내신 신호 같다’고도 생각했다는 최순화 씨는 그 사건 이후, 누구 못지않게 한국교회가 바뀌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오상아 기자

[김정남 암살] 맨손에 독물혀 공격·北외교관도 연루

김정남 암살을 직접 실행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국적의 여성은 독성 물질을 맨손에 묻혀 공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에 연루돼 경찰이 추적 중인 북한 국적 인물 가운데에는 북한대사관 소속 외교관 등도 포함되며 이번 암살극이 북한의 국가적 차원의 공작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칼리드 아부 바카르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의 기자회견에서는 김정남 암살과 관련해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이 여럿 포함됐다.

경찰은 우선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사진만 공개했던 북한 국적자 2명의 신원을 확인해 이날 공개했다. 이들은 북한대사관 2등 서기관 현광성(44)과 고려항공 직원 김옥일(37)로 아직 말레이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사건과 관련돼 있다는 근거가 있다고 확실히 강조하며 북한대사관에 이들의 면담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신원이 확인된 북한 국적 인물 가운데 처음으로 당국 소속 인물이 확인된 만큼 이번 사건과 북한 당국의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확인될지 주목된다. 다만 북한이 이들에 대한 말레이 경찰의 ‘인터뷰 요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경찰이 강제로 구인해 조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자세한 범행 수법도 새로 확인됐다.

기존에는 CCTV 등을 근거로 베트남 여성 도안 티 효영(29)과 인도네시아 여성 시티 아이샤(25)가 독극물이 묻은 형겔이나 장갑, 또는 독극물 스프레이 등을 이용해 김정남에게 독극물을 주입한 것으로 알려져왔다. 그러나 이날 칼리드 청장은 이들이 ‘맨손’(bare hands)으로 독극물을 김정남 얼굴에 문질렀다고 말했다. 남성 용의자가 아이샤와 효영에게 차례로 손에 액체를 발라줬다는 것.

하석수 기자

“샤이보수 반영하면 문재인 42.3%, 황교안 30.0%”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는 이른바 ‘샤이 보수’ 현상을 반영해 최근 대선주자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문재인 42.3%, 황교안 30.0%, 안철수 19.1%’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2일 자유한국당 의원들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결과를 소개했다.

이 대표는 또 “안희정 충남지사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올 경우, 안희정 45.1%, 황교안 26.9%, 안철수 18.8%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문재인-안철수 양자 구도에서는 문재인

43.6%, 안철수 35.6%로 나타났으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맞붙을 경우 문재인 53.6%, 황교안 33.7%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는 리얼미터가 13~14일 전국 성인 유권자 1천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6일 발표한 여론조사(신뢰수준 95%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에 추가로 지난 대선 득표율 가중치를 적용한 가공치다.

하석수 기자

지구촌 어딘가에 있을 나와 꼭 닮은 아동을 찾아보세요!
그 아이의 꿈과 희망을 나의 손 끝으로 지켜줄 수 있습니다.

1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2 모바일 앱 mykids.wv.or.kr로 접속해보세요

mykids.wv.or.kr

3인원 후원물 하사권

- 월드비전 Family Card와 함께 이름 정보가 담긴 카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아동과 성인을 교육하여 선물을 보내거나 아동이 사는 지역을 방문하여 아동의 현재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 1회 아동인력발달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후원금을 통한 변화

- 월 3인원의 후원금은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아동의 영양, 보건, 학습, 교육 및 미술에 혜택을 줍니다.
- 아동후원은 한 아이의 배고픔을 넘어 꿈을 가꾸고 한 아이의 희망이 됩니다.

홈페이지 www.worldvision.or.kr 후원 문의 및 신청 02-2078-7000

말에 온전한 자(야고보서 3장 1-18절)

옛날에는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어야 말을 할 수 있고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듣고 싶지 않아도 그냥 어디를 가나 말, 말, 말이 붓물처럼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시대입니다.

특히 요즘은 텔레비전 뉴스쇼 같은 데서 무슨 ‘패널’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도대체 무슨 할 말들이 그리 많은지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온종일 토론이라고 하는데, 제가 듣기에는 ‘뉴스’가 아니라 그냥 삼류 잡지이나 실릴 법한 온갖 루머와 억측들의 반복입니다.

그런 식으로 ‘여론 재판’을 다해 놓고서는 ‘국민의 뜻’이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게다가 온갖 종류의 포털사이트와 SNS들은 대중 전체의 언어문화를 갈수록 저질화시키고 있습니다.

갓가지 신조어들과 맞춤법을 아예 신경도 쓰지 않는 문장들은 그저 예교에 불과하고, 욕설이 거의 표준말처럼 자리를 잡아가며 ‘카더라’는 소식이 순식간에 정설로 둔갑해 버리기 일쑤입니다.

정말이지 지금의 대한민국은 ‘말의 홍수’ 아니 ‘말의 공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세상 사회만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록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야말로 예로부터 ‘말쟁이’라는 별명을 듣고 있으며, 교회야말로 어쩌면 ‘가장 말 많은 단체’로 손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쩌다 이런 부끄러운 일이 생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실 이것은 오늘날에만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일찍이 초대교회 시절부터 이미 교회 안에 온갖 ‘말로 인한 문제’가 팽배하고 있었음을 바로 본문이 잘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서의 저자인 야고보는 신앙 성격에 동명인이 여러 명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열두 제자 중 하나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인데, 그 외에도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 중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는 초대교회에서 별 영향력이 없는 인물였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일찍 헤롯 왕에 의하여 순교를 당했으므로(행 12:2),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그가 예루살렘교회의 초대 감독이 되었으며, 사도 바울 또한 그를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교회의 기둥’(갈 2:9) 같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사실들을 보아서도 더욱 유력해집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예루살렘교회의 일선 지도자로서 교회 안에 생기는 온갖 문제들을 더욱 피부적으로 접하게 되었을 것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곧 ‘말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교회가 그런 불명예스러운 오명을 벗고 우리 각 신자가 ‘말에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꼭 명심해야 할 두 가지 사실이 무엇인지를 본문에 기록된 야고보의 교훈을 통해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1. ‘말을 잘하는 능력’보다 우선 ‘말을 제어할 줄 아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1절부터 12절에 기록하기를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 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2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3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4도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느니라 5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6하는 곧 불이요 불의의 체계라 하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느니라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7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8하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느니라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9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

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느니라 10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데도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니라 11생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 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12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 무가 갑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 물을 내지 못하느니라”고 했습니다.

1절에서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 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서두에서부터 이 문제에 대하여 강한 어조로 훈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생’이란 바로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교사’를 뜻하는데, 초대교회 당시 ‘선지자’와 ‘사도’ 다음으로 중요한 직분이었습니다(고전 12:28).

이들은 오늘날의 주일학교 교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당시 사도들과 감독들의 숫자가 충분하지 못하던 시절에 평신도 중에서 교회의 성경공부도 인도하고 또는 여러 교회들을 돌아다니며 순회전도 활동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교사의 직분이란 신자로서 정말 ‘사모할만한 큰 은사’(고전 12:31)였던 것입니다.

문제는 초대교회 안에서 그런 ‘교사’로 자칭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이 생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원래가 유대 사회는 ‘선생’ 즉 ‘랍비’를 극도로 존경하는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교육 과정과 객관적인 인정을 받아야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바깥 사회에서는 되기도 어렵고 그 대신 존경은 많이 받는 ‘랍비’에 해당하는 직분이 교회 안에 오니까 바로 이 ‘교사’라는 직분을 통하여 훨씬 더 쉽게 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신학교를 졸업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남보다 신앙 문제에 대하여 경험이 좀 많고 말만 잘하면 얼마든지 교사 행세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사회에서는 평균 수준도 안 되면서 교회 안에서 ‘그저 입만 가지고’ 선생 노릇하겠다는 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났고, 그 결과 교회는 그런 ‘질이 떨어지는 교사’들 때문에 그야말로 ‘바람 잘 날 없는 단체’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예루살렘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너희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즉 ‘너희는 아무나 선생 되겠다고 나서서는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경계했던 것입니다.

“선생 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라는 말은, 남을 가르치는 자에게는 더 막중한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며, 그 책임을 제대로 감당했는지 아닌지에 대하여 나중에 예수님 앞에서 더욱 엄격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2절에서 신자에게는 이처럼 말 많이 하는 선생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밝히면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고 했습니다.

‘말하는 재미에 스스로 빠진’ 선생이 아니라 그 반대로 ‘말에 실수가 없도록’ 노력해야 진정 훌륭한 신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온전한 사람’, 문자 그대로 ‘완전하다고 불릴만한 신자’요, ‘온 몸도 굴레 씌울 수 있는’ 즉 자신을 스스로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는 인격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혀”야말로 온 몸의 지체들 중에서 가장 ‘길들이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인데, 3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가 이 사실에 대한 예화들입니다.

“말”은 사람보다 훨씬 더 험센 짐승이지만 그 입에 “재갈”이라는 작은 도구 하나를 물리지만 하면 마음대로 부릴 수 있으며, “배”는 엄청난 무게를 가진 것이지만 그 방향의 조정은 오로지 후미에 붙은 아주 작은 “키”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혀’는 몸 전체에 비해 극히 “작은 지체”이지만 그것 하나만으로도 “온 몸을 제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큰 것을 자랑한다”는 표현은 이 구절의 문맥에서는 ‘작은 것이지만 극히 광범위하고도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만 실수하지 않도록 잘 제어할 수 있으면, 자신의 인격과 품위를 지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큰 광풍 같은 위험을 자초하지 않고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에서 12절까지는 이처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혀의 ‘위협성’을 일깨워 주는 내용입니다.

우선 혀는 ‘온 몸을 더럽힐 수’ 있는 데, 그것은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순식간에 태워버리는 것과 같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마치 “지옥 불”처럼 한 개인의 “삶의 수레바퀴” 전부를 불살라 버릴 수도 있을 정도로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또한 혀는 ‘길들일 수 없을 정도로 쉬지 않는 악과 죽이는 독이 가득한’ 지체입니다.

즉 통제되지 않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독성물질이나 폭발물과 같아서 단 한 순간에 본인의 성품을 망치고 교우 간의 우정을 파괴하며 심지어 타인을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크고 심각한 혀의 위험성은 9절 이하 12절에 나오는 대로 곧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외식적인 교인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통제되지 않은 혀는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을 저주’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쌈”이나 열매 맺는 “나무”와 같은 자연계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일이지만, 오직 사람만은 바로 ‘혀’ 하나 잘못 놀림으로써 그야말로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그런 ‘두 얼굴을 가진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기록신자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말을 적게 하는 것이며, 말을 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 바로 말에 실수를 하지 않는 것임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즉 말을 더 잘하게 돼서가 결코 아니라 말을 더 아낄 줄 알게 되고, 말하는 재주가 늘어서가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지 않는 자제력을 발휘함으로써 진작 ‘신앙 좋은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옹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Speech is silver, silence is gold.)라는 유명한 격언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튀어나오는 대로 말하기는 참 쉽지만, 그야말로 ‘얕지른 물’처럼 이미 입 밖으로 낸 말의 실수를 수습하기

는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 번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것을 변명하느라고 또 다른 거짓말을 계속 양산하게 되며, 심지어는 ‘말로 타인을 죽여’ 놓고도 스스로는 ‘임바른 소리 했다고’ 자찬에만 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도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고 한 것입니다.

정말이지 우리는 언변의 기술이 아니라 먼저 말을 아끼고 말을 적게 하는 법부터 익혀야 합니다.

유창하게 연설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스스로 입을 닫는 법을 진짜로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조심해서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이 됨으로써, 실로 교회 안에서 ‘참된 선생’으로 존경을 받고 세상 사회 앞에서도 칭송을 듣는 신앙인격자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2. 정말 ‘말 잘하는 사람’은 곧 ‘속에 있는 지혜를 선한 행실로써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13절 이하 18절의 말씀에 “13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운운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14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15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16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17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18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기록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말에 온전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말을 함부로 해서 안 된다는 것은 분명히 알겠는데, 그렇다면 말의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놀랍게도, 이어지는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은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체국 예금에서 우리 모두를 위한 미래의 꿈을 함께 하겠습니다.

똑똑한 금융

우체국으로 시작하자!

더 스마트해진
우체국 예금

